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지 4곳에 3년간 420억원 투입

### 곡성·구례·장흥·진도군 '지역발전 프로젝트' 선정

전남도는 주민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대상지 4곳을 선정, 3년간 42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 공모에만 의존해왔던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지원을 통해 시·군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지난 3개월간 공모를 통해 21개

시·군으로부터 24개 사업을 신청받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별 객관적 심사를 거쳐 2020년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곡성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새로운 문화플랫폼(곡성역)과 곡성군 '스테이션-1928' △구례군 '화엄 4색이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 △장흥군 '역사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 △진도군 '아리랑 Good(굿) 거리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독창성, 지속 가능성,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3년간 최대 50억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실현과 지역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간부공무원 정책워크숍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오후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시청혁신가치 공유를 위한 광주광역시 간부공무원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29일까지 '가을 농촌여행주간' 운영

### 전국 104개 농촌여행지서 숙박 등 최대 30% 할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여행의 매력을 일리기 위해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한 '가을 농촌여행주간'을 29일까지 운영한다.

농촌여행주간에는 전국 104개 농촌여행지에서 체험프로그램과 식사, 숙박을 할 경우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가을 여행 테마에 맞춰 과일수확 체험, 가을 축제 즐기기, 가을 정취를 느끼는 산행, 산채나물도 떠나는 건강한 식도락 여행 등 기호를 반영해 다양한 추천 여행코스와 농산연계 상품도 마련돼 있다.

가을 농촌여행주간에는 풍성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여행주간에 기차여행상품 이용객 500명에게는

여행 당일 1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한다. 웰포털에서 소개하는 농촌여행지를 방문해 인증샷을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61곳에 숨겨진 보물찾기 이벤트도 열린다. 마을의 역사가 담긴 장소나 추억이 깃든 물건을 찾아 인증샷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농촌여행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은홍 기자

## 광주시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전국 1위

### 상반기 224명...포상금 400만원

광주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포상금 400만원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아이돌보미 확충 성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아이돌보미 확충안을 적극 홍보해 올해 상반기 224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고, 이 가운데 194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에는 현재 922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신청한 부모의 대기시간이 크게 감소되고 경력단절 중장년여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아이돌보미들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추석연휴 전남 서남권

### 여객선 이용객 21% 줄어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9월11~15일) 중 목포·완도 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5만543명으로 지난해 19만1774명에 비해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여객선 이용객은 목포~제주간이 1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목포~홍도는 1만명으로 14% 줄었으며 진리~점암 1만1000명(8%↓), 땅골~산양 2만2000명(5%↓), 화흥포~소안 1만3000(8%↓), 완도~청산 1만000명(8%↓) 등 대부분 항로에서 감소했다.

차량도 목포~제주간이 2500대로 30% 감소했으며, 땅골~산양 6800대(6%↓), 화흥포~소안 3600대(8%↓), 완도~청산 2300대(9%↓) 등 대부분 감소했다. 반면 진리~점암은 4000대로 5%, 땅골~일정은 2000대로 6%가 늘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양대 항로 운항이 중단된데다 주말이 긴 짧은 연휴로 여객선 하거나 고향 방문을 미룬 때문으로 풀이된다.

##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마을공방 모집

광주 동구가 창업공간 지원 등 체계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마을공방 4개소로 접수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문화·예술, 디지털 공방, 콘텐츠기반 기업 및 단체 △수공예 창작·예술공방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입주기업이 되면 창업지원센터 3층에 위치한 공간(76㎡~115㎡)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사용료 50%를 감면받는다. 입주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달빛음악회 개최

광주 서구가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창한옥문화관에서 "너와 나의 고운 소리"라는 주제로 전통가락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을밤 달빛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리꾼 김산옥의 진행으로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사자춤 공연, 퓨전아쿠스틱 밴드「푸르른밤」, 퓨전국악밴드「라운」, 퓨전국악그룹「무트머지」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 남구, 관내 공중 화장실·어린이공원 모니터링

광주 남구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공중 화장실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관내 어린이공원 8곳과 근린공원 7곳, 제석산 등산로에 마련된 공중 화장실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구 여성친화 서포터즈 회원 40명이 함께한다.

## 북구,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에서 가장 잘했다

광주 북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잘 수행한 기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전국 1266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관내 2개 기관·단체가 공익활동형 분야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성과 등을 점검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지난해 9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9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형 28개, 시장형 14개 등 42개 사업을 추진해 총 363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 임곡동 산막제에 리틀야구장과 산책로 생긴다

광주 광산구가 국토부의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산막제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제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억을 확보했다. 광산구의 사업은 그동안 개발제한에 묶여있던 임곡동 산막제 주변에 산책로와 리틀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

국토부의 공모에는 전국 47개 지자체 69개 사업이 올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았다.

국토부의 심사·실사에서 광산구는, 유류공유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한국야구의 대명사인 선동열의 고향 광산구에 유소년 리틀야구장을 설치하는 점, 사업 관련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강점으로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렸다.

임형택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